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목장교회 나눔지

열다섯 번째 나눔지 20230528

[5월, 마음에 새기는 말씀 -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경배 찬양

지극히 높으신 주

1.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2.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3.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음 당한 어린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4.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생명을 얻었네

[후렴]
찬양하세 우리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선교 [최미희 선교사]

콩고민주공화국

1. 각 처소에서 시작될 클럽 전도현장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2. 사역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섬기는 이들의 영육이 강건하여지도록

함께여서 더 행복한 시간들, 마지막까지 힘을 내어요!^^
제출 기간 : 6월 1일 목요일 낮 12시 / 6월 4일 주보에 큐알코드로 투표 진행합니다~

2023 오렌지 투어 화이팅

우.목.소

우리 목장을 소개합니다 / 목장 사진 컨테스트 안내

1. 목장 모임에서 목자와 목원들이 상의하여, 재미 / 의미 / 감동 / 참신함 등등이 담긴 사진을 찍을 계획을 합니다.
2. 계획에 따라 사진을 찍고, 간단한 목장 소개와 사진의 의도, 의미 등을 준비합니다. 사진 제출은 매 주 목요일 낮 12에 마감합니다. 5월 첫주는 우.목소. 회의 시간으로 보내주시고, 첫번째 사진 마감은 5월 11일 목요일 낮 12시입니다.
3. 목자는 준비된 사진과 내용들을, 마을장에게 전달하고, 마을장은 김성연 목사와 각 지역장에게 함께 전달합니다. (김성연 목사 : 010-2527-5063)
ex) 더은혜지역 10-5 목장 사진과 내용을 목자이신 최혁종 집사님이 마을장이신 조성봉 집사님께 전달해주시고, 조성봉 집사님께서 김성연 목사와 지역장이신 김종설 장로에게 함께 전달해주세요.
4. 전달된 사진과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성도분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주보에 큐알코드로 안내됩니다.
5. 투표를 통해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한 목장에게, 20만원 상당의 외식 상품권을 증정합니다. (외식 상품권은 지정된 식당에서만 사용 가능)
6. 5월 한 달간 매 주 진행이 되며, 첫번째 시상은 5월 14일 주일이고, 마지막 시상은 6월 4일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로마서 1장 18절)

'진노가 얼마나 큰 가를 아는 사람만이
자비의 위대함에 압도될 것이다.'

- 에밀 브루너 -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의 질문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 진노하시며 심판하실 수 있는가?'*** 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만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온전한 공의와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죄에 대한 심판 없이, 사랑만을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십자가의 의미도 잃은 채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로마서는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할까요?"**라는 질문에 선명하게 대답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18-3:20 안에 복음의 의미를 분석해 나갑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사악함에 대해 행하시는 의로운 심판이 공정한 것임을 논증합니다.

1_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먼저 보이셨지만,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 불경건,불의로 응대하였습니다.(18절)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 없이, 모두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상관 없는 존재가 되었고,
언약 관계에 대한 신실함이 없는 상태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이들에 대해 '진노'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성을 잃고 격분하는 인간의 화풀이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오는 일관된 의로운 분노입니다.

[질문] '삽자가 죽음 없이 그냥 용서해주시면 안 되요?'라고 누군가 나에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2_하나님의 진리 - 분명히 보여주심 (19-20절)

하나님은 피조 세계에 자신을 알 수 있도록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풀 한 포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지나다니며 보는 잡초 하나도,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이처럼 모든 만물에서 드러납니다. (20절) 모든 창조 세계에서 만물은 하나님을 알고 그 지식을 바삐 전하며 찬양합니다.(시19편)

3_인간의 반응 - 알고도 거부함(21-23절)

인간은 이 모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도, 마음과 행동 모두 거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배반하고 떠납니다. 인간의 타락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광, 감사를 돌리지 않음
23절)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들과 바꿈

결국 우리는 전 인격적으로 타락하여 다음처럼 되었습니다.

지성 => **허망함** | 정서 => **어두움**
의지 => **어리석음** | 영적 => **우상 숭배**

4_하나님의 응답 - 내버려두심(24-32절)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반역한 인간들을 향하여, **'내버려두심'**으로 심판하십니다. (24, 26, 28절)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부끄러운 욕심대로 성적인 타락에, 상실한 마음대로 합당치 못한 삶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내버려두심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정욕대로 사랑가는 인간의 현실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사형 언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기만 이렇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두둔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질문] 나는 '죄와 심판'을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나요?
하나님의 마음 / 나의 생각 간의 차이점을 나누어봅니다.

[나눔] '알고도 거부한 삶'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이런 삶의 자세가 있었다면 나누어 봅니다.

나눔 주일 말씀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할까요? / 로마서 1:18-32]을 통해 받은 은혜와 삶의 적용점을 나눕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여기에서 같이 세워갑니다.

기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 대해 진노하신다는 분명한 진리, 이제 마음에 더욱 세기겠습니다.
	인간의 반응	알고도 거부했던 무수한 나의 삶의 순간들, 선택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돌이킴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응답	'내버려 두심'이 얼마나 큰 심판인지 다시 한 번 묵상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더 깊이 알겠습니다.